

'91년 1~4월중 원유도입 실적

- 동력자원부 -

-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91. 1-4월중 총원유도입량은 국내석유소비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123 백만배럴(1,021千B/D)이며, 평균도입단가는 전년동기보다 3.45\$/B 상승한 20.74\$/B이고, 총도입금액은 27.0억달러(CIF 기준)로 전년동기보다 7.8억달러가 증가하였음.

(通關基準)

	1990 1-4월	1991 1-4월	증 감	%
○ 원유도입량(千배럴) (千B/D)	105,217 (877)	122,546 (1,021)	17,329 (144)	16.5
○ 단가(FOB, \$/B)	17.29	20.74	3.45	20.0
○ 금액(CIF, 백만달러)	1,920	2,695	775	40.4

- 그러나 월별 원유도입단가추이를 '90. 8월 걸프사태이후 큰폭으로 상승하였던 원유도입단가는 최근 국제시황의 안정세에 따라 '91. 3월 이후 16\$/B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4월중 16.42\$/B를 기록하였음.

<국내 原油導入價 추이(\$/B, FOB)>

'9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1. 1월	2월	3월	4월
14.56	19.92	25.74	31.43	29.76	26.39	21.73	16.82	16.42

- 지역별로 보면,
 - 中東지역은 사우디, 이란 등 中東국가들과의 장기계약물량증가등에 기인한 도입물량의 증가(전년 동기대비 16.3%)에도 불구하고, 총도입량중 中東의존도는 전년동기대비 75.9%에서 0.1% 포인트 감소한 75.8%를 시험하였음.
 - 東南亞지역은 생산량한계 및 상대적고가등으로 도입물량이 전년동기대비 3.5% 증가에 그쳐, 총도입물량중 이지역 도입비중은 21.7%에서 2.4%포인트 감소한 19.3%에 머물렀음.

(단위: 千배럴, %)

	1990. 1-4		1991. 1-4		構成比 增減率 (%)
	物 量	構 成 費	物 量	構 成 費	
中 東	79,843	75.9	92,876	75.8	△ 0.1
東 南 亞	22,850	21.7	23,657	19.3	△ 2.4
美洲·아프리카	2,525	2.4	6,013	4.9	2.5
計	105,217	100	122,546	100	

- 국가별로 보면,
 - 1-4월중 1위 도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329千B/D(전체도입량의 32.2%)를 도입 하였으며, 2位 오만, 3位 U. A. E., 4位 이란, 5位 인도네시아 順으로, 걸프사태이후 사우디아와의 대폭적인 장기계 약체결(물량 : 185千B/D)로 사우디로 부터의 원유도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1-4月中 총도입국수는 17개국에 이르며 전년동기에 비해 2개국이 늘어나 도입선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단위 : 千B/D)

順 位	1	2	3	4	5	기 타	합 計
'90. 1-4月	오 만 (187)	U A E (157)	이 란 (115)	쿠웨이트 (74)	말레이시아 (70)	(274)	(877)
'91 1-4月	사 우 디 (329)	오 만 (142)	U A E (140)	이 란 (129)	印 尼 (79)	(202)	(1,021)

- 도입형태별로 보면,
 - '91. 4월말 현재 장기계약체결에 의한 원유확보물량은 728.5千B/D로 걸프사태전(509.4千B/D) 보다 무려 43.0%가 증가함으로써
 - 1-4月中 총도입물량중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구성비율은 71.3%를 차지하여 원유의 안정공급에 기여함.◆

□ 해외석유정책 □

日本 석유정제시설 증설에 관한 석유심의회 보고서

日本の 석유정제설비증설문제를 검토해온 석유심의회(통산장관의 자문기관)의 석유정제설비문제소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중장기적인 석유제품수요의 증가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제능력증강을 18년만에 인가하는 것을 명기하는 한편, 증강허가의 기준으로서 ①개조에 따른 증강은 기업그룹의 전년도 가동률이 80%를 초과할 것, ②이 경우, 개조 3년후의 가동률이 8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증강에 한하는 등 능력확장의 상한을 정했다. 또 정유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때에는 산유국과의 제휴강화와 日本석유산업의 집약과 연계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인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안은 6월 6일 석유심의회 석유부회에서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日

本石油와 昭和셀석유등은 통산성에 능력증강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고서안은 우선 지난해 8월에 발생했던 걸프위 기후 쿠웨이트등으로부터의 석유제품수입이 어렵게 된 결과, 日本에서의 정제가 늘어나 정유공장의 가동률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지적, 이제까지 동심의회와 정부가 다루어왔던 1차정제설비(상압증류장치 = 토퍼)의 과잉설비폐기라는 방침을 전환, 필요에 대응하여 능력증강을 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기업그룹의 전년도 상압증류시설가동률이 대강 80%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개조에 따른 능력증강에 있어서는 석유심의회에서의 자문은 필요없다고 했다.

한편, 신정유공장건설의 경우는 가동률 80%에 더하여, 석유심의회에서의 심의를 의무화시켰다. 이 경우 산유국이 자문참가하는 등 석유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日本시장진출등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설비의 신증설은 전년도의 日本평균가동률이 7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능력과잉을 피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취급한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정유공장의 개조와 신설을 인가하지 않을 방침.

'91년 1/4분기 에너지수급동향

- 동력자원부 -

- '91년 3월중 국내에너지소비(최종에너지기준)은 6,847천 TOE로서 금년 2월과 같은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였다.
이로서 금년 1-3월간의 소비에 있어서도 22,115천 TOE로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여 전년의 12.8% 증가율보다는 0.3%p 증가하였다.
- 동력자원부가 발표한 '91. 3월중의 에너지수급동향에 따르면 설날연휴와 걸프전쟁 영향으로 폭등('91. 1월)과 현저한 둔화세('91. 2월)를 나타냈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3월에 6.4%에 머무른 것은 걸프전 종식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하는 심리가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월의 폭등세가 미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

	1 월	2 월	3 월
'90년	12.4	16.7(14.4)	9.0(12.8)
'91년	26.0	6.4(16.8)	6.4(13.1)

()내는 누계 비율임.

-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가 5.6% 증가에 그쳐 13.7%p 둔화되었으며 전력역시 4.5%p가 둔화된 10.4%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91년에 들어 지속적으로 둔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연탄은 광양3호기 본격가동과 건축경기 호조에 따른 시멘트 생산량증가등의 원인으로 전년대비 16.5%p 크게 증가한 19.3% 증가하였으며 무연탄은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은 크게 둔화되고 수송과 가정·상업부문은 전년도 보다 약간 증가하였는 바, 부문별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 산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0%p 둔화 되었는바, 특히 석유소비가 17.8%p 둔화된 3.5% 증가에 그친 것이 큰 원인으로서 이는 걸프전 종식에 따라 국제유가의 안정세로 에너지의 안정공급 예상 심리와 전년 대비 공휴일의 증가('90년 : 5일, '91년 : 7일)로 인한 제조업의 가동률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990. 3(1-3)	1991. 3(1-3)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증가율(%)	13.7 (13.5)	8.7 (17.9)
· 석유소비 증가율(%)	21.3 (15.7)	3.5 (19.4)
· 전력소비 증가율(%)	13.3 (15.7)	7.5 (8.7)
· 제조업 가동률(%)	80.3 (80.5)	78.7 (80.8)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10.6 (8.4)	4.1 (8.0)

- 수송부문은 여전히 높은 차량 증가로 전년동기(12.6%)와 비슷한 13.0% 증가 하였으나 가격인상 및 차량 10부제 운행효과('91. 3. 18 해제)의 지속으로 휘발유 소비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경유는 증가하였다.

	1990. 3(1-3)	1991. 3(1-3)
· 에너지소비 증가율(%)	12.6 (15.6)	13.0 (18.0)
· 휘발유소비 증가율(%)	32.6 (34.1)	13.1 (17.6)
· 경 유소비 증가율(%)	10.6 (13.0)	16.2 (25.8)
· 차량 증가율(%)	31.0	26.3
(자가용 증가율, %)	43.5	33.9

-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은 전년도(2.1%)와 비슷한 수준인 2.5%를 나타냈으나, 1-3월의 누계는 전년도 보다 5.3%P 둔화된 6.5% 증가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무연탄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도시가스는 이의 대체효과로 높은 증가세를 시험하였으며, 경유의 등유대체는 3월에도 지속되었다.

	1990. 3(1-3)	1991. 3(1-3)
· 에너지소비 증가율(%)	2.1 (11.8)	2.5 (6.5)
석유 증가율(%)	31.7 (42.4)	6.9 (17.1)
(등유소비 증가율, %)	82.3(103.9)	△8.1 (5.1)
(경유소비 증가율, %)	22.0 (26.7)	14.2 (36.5)
무연탄 증가율(%)	△20.6 (△10.4)	△9.2 (△10.1)
전 력 증가율(%)	20.1 (23.0)	18.5 (16.0)
도시가스 증가율(%)	75.7 (98.4)	84.1 (70.7)

○ '91년 3월중의 에너지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1차에너지 총공급도 전년대비 2.8%P 감소된 7.8%에 그쳤으나 증가분의 전부를 석유등 수입에너지로 충당함으로써 석유의존도는 1.4%P 심화된 56.2%를 나타냈으며, 에너지수입의존도도 89.6%로서 2.4%P 심화되었다.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단위 : 천TOE, %)

	1990				1991				구성비
	3 월		1-3 월		3 월		1-3 월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최 종 에 너 지 소 비	6,436	9.0	19,559	12.8	6,847	6.4	22,115	13.1	100.0
산 업	2,972	13.7	8,536	13.5	3,230	8.7	10,063	17.9	45.5
수 송	1,153	12.6	3,248	15.6	1,304	13.0	3,835	18.0	17.4
가 정·상업	2,034	2.1	6,985	11.8	2,086	2.5	7,437	6.5	33.6
공공·기타	277	0.2	790	4.1	227	△17.9	780	△1.3	3.5
에 너 지 원									
석유제품(천배럴)	27,997	19.3	83,000	21.1	29,577	5.6	97,333	17.3	61.3
무연탄(천 톤)	1,783	△20.7	6,112	△10.5	1,617	△9.3	5,485	△10.3	11.6
유연탄(천 톤)	1,340	2.8	3,895	8.7	1,599	19.3	4,685	20.3	14.0
전 력(GWH)	7,336	14.9	22,259	17.5	8,096	10.4	24,624	10.6	9.5
도시가스(백만m ³)	91	65.4	327	89.0	159	75.7	543	65.9	2.6
신 탄(천 톤)	290	△21.0	1,010	△21.3	225	△22.4	783	△22.5	1.0

〈1차 에너지 총공급〉

	1990				1991				구성비
	3 월		1-3 월		3 월		1-3 월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차 에너지 총공급(천TOE)	7,988	10.6	23,866	13.2	8,610	7.8	26,646	11.6	100.0
석 유(천배럴)	31,037	24.0	91,727	23.1	34,374	10.8	107,921	18.2	56.8
L N G(천 톤)	145	14.6	530	21.8	235	61.8	740	39.6	3.6
무연탄(천 톤)	1,959	△20.6	6,617	△12.0	1,788	△8.7	5,971	△9.8	10.3
유연탄(천 톤)	1,741	2.8	5,155	7.8	2,072	19.0	6,169	19.7	15.3
원 자 력(GWH)	4,779	7.7	13,399	15.9	4,519	△5.4	13,058	△2.5	12.3
수 력(GWH)	402	43.6	1,026	39.6	334	△16.9	962	△6.2	0.9
신 탄(천 톤)	290	△21.0	1,010	△21.3	225	△22.4	783	△22.5	0.8

'91 1/4분기중 에너지 수급동향

1. 개황

	'90. 1-2	'90. 3	'91.1-2	'91. 3	'90. 1-3	'91. 1-3
○ 1차에너지(천 TOE)	15,875	7,988	17,981	8,610	23,866	26,646
(증가율, %)	(14.6)	(10.6)	(13.3)	(7.8)	(13.2)	(11.6)
○ 최종에너지(천 TOE)	13,082	6,436	15,275	6,847	19,559	22,115
(증가율, %)	(14.4)	(9.0)	(16.8)	(6.4)	(12.8)	(13.1)
○ 석유 의존도 (%)	53.3	54.8	57.0	56.2	53.9	56.8
○ 수입 의존도 (%)	85.2	87.2	88.5	89.6	85.9	88.9

2. 최종에너지 소비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産 業	2,972 (46.2)	13.7	3,230 (47.2)	8.7	8,536 (43.6)	13.5	10,063 (45.5)	17.9
輸 送	1,153 (17.9)	12.6	1,304 (19.0)	13.0	3,248 (16.6)	15.6	3,835 (17.4)	18.0
家庭·商業	2,034 (31.6)	2.1	2,086 (30.5)	2.5	6,985 (35.7)	11.8	7,437 (33.6)	6.5
公共·기타	277 (4.3)	0.2	227 (3.3)	△17.9	790 (4.1)	4.1	780 (3.5)	△1.3
計	6,436	9.0	6,847	6.4	19,559	12.8	22,115	13.1

()는 구성비임.

3. 3월의 특징

- 설날연휴와 걸프전쟁 영향으로 暴騰('91. 1월)과 현저한 둔화세('91. 2월)를 나타내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3월에는 전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1-3월의 누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

	1 월	2 월	3 월
· '90 년	12.4	16.7(14.4)	9.0(12.8)
· '91 년	26.0	6.4(16.8)	6.4(13.1)

()내는 累計

- 3월의 源別 최종에너지 소비도 유연탄과 도시가스를 제외하고는 증가율이 감소하고 무연탄의 감소세는 둔화, 특히 전력의 증가율 감소세가 돋보임.

【源別 최종에너지소비 증가율】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석 유	19.3	5.6	21.1	17.3
- 무 연 탄	△20.7	△9.3	△10.5	△10.3
- 유 연 탄	2.8	19.3	8.7	20.3
- 전 력	14.9	10.4	17.5	10.6
- 도시가스	65.4	75.7	89.0	65.9
- 신 탄	△21.0	△22.7	△21.3	△22.9

4. 부문별 분석

산업 부문 ———— 증가율 8.7
기여도 4.0

○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전년대비 5.0%p 둔화. 이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휴일의 증가('90:5일, '91:7일)로 인한 제조업의 가동률 감소와 걸프전 종식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공급 예상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에너지 소비증가율(%)	13.7	8.7	13.5	17.9
· 石油소비 증가율(%)	21.3	3.5	15.7	19.4
· 전력소비 증가율(%)	13.3	7.5	15.7	8.7
- 제조업 가동률(%)	80.3	78.7	80.5	80.8
- 제조업생산산지수증가율(%)	10.6	4.1	8.4	8.0

가정·상업부문 ———— 증가율 2.5
기여도 0.8

○ 3月中 에너지 소비는 전년도의 증가율(2.1%)과 비슷한 수준인 2.5%를 나타냈으나 1-3月の 누계는 전년도보다 5.3% 둔화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에너지 소비 증가율(%)	2.1	2.5	11.8	6.5

○ 석유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무연탄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도시가스는 이의 대체효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輕油의 등유대체효과는 지속적인.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石油 증가율(%)	31.7	6.9	42.4	17.1
· 등유소비증가율	82.3	△8.1	103.9	5.1
· 경유소비증가율	22.0	14.2	13.0	36.5
- 무연탄 증가율(%)	△20.6	△9.2	△10.4	△10.1
- 전 력 증가율(%)	20.1	18.5	23.0	16.0
- 도시가스 증가율(%)	75.7	84.1	98.4	70.7

수송 부문 ———— 증가율 13.0
기여도 2.3

○ 전년동기(12.6%)와 비슷한 13.0% 증가하였으나 가격인상과 차량 10부제운행효과('91. 3. 18해제)로 휘발유소비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경유소비는 증가.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에너지 소비 증가율(%)	12.6	13.0	15.6	18.0
· 휘발유소비 증가율(%)	32.6	13.1	34.1	17.6
· 경유소비 증가율(%)	10.6	16.2	13.0	25.8
· 부탄소비 증가율(%)	7.6	7.7	4.3	11.1
- 차 량 증 가 율(%)	31.0	26.3		
(자가용 증가율, %)	43.5	33.9		

공공·기타부문 ———— 증가율 △17.9
기여도 △0.7

○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물량은 미미함.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에너지 소비 증가율(%)	0.2	△17.9	4.1	△1.3
· 석유소비 증가율(%)	△0.3	△22.2	3.6	△2.5
· 전력소비 증가율(%)	10.5	6.7	13.4	6.4

5. 1차에너지 총공급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차 에너지 총공급(천TOE)	7,988	10.6	8,610	7.8	23,866	13.2	26,646	11.6
○ 석 유(천배럴)	31,037 (54.8)	24.0	34,374 (56.2)	10.8	91,727 (53.9)	23.1	107,921 (56.8)	18.2
○ L N G(천 톤)	145 (2.4)	14.6	235 (3.5)	61.8	530 (2.9)	21.8	740 (3.6)	39.6
○ 무 연 탄(천 톤)	1,959 (11.2)	△20.6	1,788 (9.6)	△8.7	6,617 (12.7)	△12.0	5,971 (10.3)	△9.8
○ 유 연 탄(천 톤)	1,741 (14.4)	2.8	2,072 (15.9)	19.0	5,155 (14.3)	7.8	6,169 (15.3)	19.7
○ 원 자 력(GWH)	4,779 (15.0)	7.7	4,519 (13.1)	△5.4	13,399 (14.0)	15.9	13,058 (12.3)	△2.5
○ 수 력(GWH)	402 (1.2)	43.6	334 (1.0)	△16.9	1,025 (1.1)	39.6	962 (0.9)	△6.2
○ 신 탄(천 톤)	290 (1.0)	△21.0	225 (0.3)	△22.4	1,010 (1.1)	△21.3	783 (0.8)	△22.5
○ 전 력(GWH)	7,336	14.9	8,096	10.4	22,259	17.5	24,624	10.6

()는 구성비임.

6. 에너지수입동향

	1990. 3	1991. 3	1990. 1-3	1991. 1-3
○ 에너지수입액(백만달러)	828	1,067	2,318	3,724
- 石 油	665	881	1,895	3,195
· 原 油	507	572	1,407*	2,331
· 製 品	158	309	488	864
- L N G	21	51	95	170
- 유 연 탄	128	106	289	310
- 무 연 탄	2	8	10	22
- 우 라 늑	12	21	29	27
(총수입액중 석유수입금액 비중%)	13.9	15.5	14.6	18.8
○ 석유도입량(천배럴)	35,934	44,007	100,444	133,931
- 原 油	27,498	31,477	75,857	101,967
(導入單價 CIF, \$/B)	18.44	18.18	18.54	22.86
- 製 品	8,436	12,530	24,587	31,964
* 임가공 포함				

— 새로운 국제석유질서 —

완만한 상승세의 世界油價

I. 메이저의 復權

걸프전쟁후 처음 열린 OPEC총회는 7~9월간의 원유생산 상한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10~12월간의 회원국생산쿼타를 9월중에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요기에 접어들면서 생산쿼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결정은 원유가격의 완만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우디 등 OPEC 온건파 및 국제석유자본(메이저)가 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듯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쿠웨이트 및 이라크의 원유생산 재개 문제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소련의 생산량이 급감할 우려도 있으므로 파란요인은 여전한 셈이다.

지난 6월 4일 OPEC본부(오스트리아의 빈)에 모인 각국 석유관계자들의 OPEC총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것과 마찬가지로」-「아니다. 이번 결정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의도하는 새로운 시나리오다」라는 엇갈린 것이었다.

걸프전쟁으로 전환된 국면

OPEC는 현행 생산상한유지 결정으로 원유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일까. 명확한 사실은 80년대 후반이래 가격상승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원유시장에 공급부족감을 주지 않으려했던 사우디가 당초의 증산안을 후퇴시켜서 상한선유지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 즉 사우디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이 다.

변신의 이유는 걸프전쟁의 영향때문이다. 사우디는 그동안 「원유가격을 억제하면 수요가 증가, 산유국의 이익이 된다」라는 전략에서 가격인상흐름을 유도하던 이란등과 대립하는 정책을 취해왔었다. 그러나 걸프전쟁은 사우디의 안전보장에 여타 중동산유국의 경제적 정치적인 안정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가격을 더 중시하는 생산량확보」 쪽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변경으로 인해 「사우디의 힘은 70년대를 능가할 정도로 강화되어 간다」(영국 옥스포드·에너지연구소 연구원)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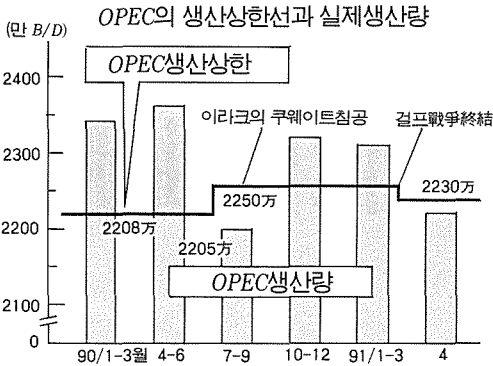
서방측에 접근하는 이란

금년 5월, 이란의 古都 이스파한에 세계 각지에서 5백여명의 석유관계자가 모였다. 걸프전쟁후 처음으로 산유국과 소비국과의 대화가 시도되었다. 회의장에서는 예정된 초대발표자 이외의 발언자가 끊임 없이 속출하여 열기에 휩싸였다.

이런 대화의 와중에서도 이란정부는 메이저관계자들과 밀담을 거듭했다. 상대는 프랑스의 또딸(TOTAL)사. 그 밀담에서 또딸社는 이란石油公社(NIOC)와의 포괄적인 합의를 보았는 바, 이란의 난바다 유전개발 및 원유구입 그리고 이란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란은 회교원리주의에 입각하여 독자적외교정책과 경제체제를 계속하면서 서방측과의 파이프를 원

유관매에 한정해왔다. 그러나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상처가 심했으므로 전쟁종결후에는 서방측과의 경제관계 확대기회를 노렸다. 그러던중 걸프전쟁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실은 TOTAL사 이외에도 이란과의 관계에 주목한 메이저가 있다. 특히 이란에 독점적 석유이권을 가진 영국의 BP사가 그러하다.

걸프전쟁으로 세력이 커진 美國系메이저가 사우디아와의 제휴를 강화, 70년대에 산유국들의 자원국유화조치로 잃었던 석유이권에 은연중 힘을 갖기 시작함에 대하여, BP사가 이란에의 재접근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BP-이란과의 협력추진 안에는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작전도 깔려있다.

이란은 OPEC내에서도 사우디에 급속히 접근, 자체변화를 중용하고 있다. 「양국이 손잡고서 원유가격을 현재의 낮은수준에서 보다 높게 올리려는 공작을 시작했다」(英國증권회사의 석유분석가 견해)

연말까지 21달러 수준

불과 12시간이라는, OPEC 31년 역사상 극히 긴 기할 정도의 짧은시간에 폐막한 이번 OPEC총회양상도, 사우디와 이란이 함께 시나리오를 쓴 것이라는 인상이다. 그 뒤에서 메이저의 영향력이 떠올러진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메이저와 OPEC와의 제휴, OPEC내에서 사우디와 이란과의 협조라는 80년대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도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배럴당 17달러선인 대부분의 OPEC원유 바스켓價格이 금년내에 21달러선으로 상승한다」(日本共同石油)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석유시장이 새로운 체제 구축동향을 보이고 있다.

II. 생산침체의 소련과 中國

소련의 OPEC가입 가능성

「OPEC는 이미 소련의 회원가입문제를 소련측과 비공식적 사전교섭으로 시작했다. 가입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지난 5월 29일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열린 주요산유국 및 소비국회의에서 이란의 석유장관은 소련의 OPEC가입문제를 전향적으로 발언하여 관계자들이 놀랐다.

이어서 6월 4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는 폐막후 기자회견을 한 스부로토사무국장이 「소련의 OPEC가입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또 6월 3일 폐막된 파리의 IEA회의에서도 소련문제가 주요의제로 대두되었다. 참가국들은 만장일치로 소련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직면한 곤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로 확인하였다. 유럽공동체(EC)는 이에 앞서 「에너지공동체構想」을 거론하였으며 개발을 원조하는 형식으로 소련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에 가져오려한다.

美國과 日本정부는 對소련 지원에 대해 엉거주춤한 자세인데, 에너지면에서 유럽·소련의 연합형성을 염려하여 IEA(국제에너지기구)회의에서는 동구상업의 가입을 개방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소련은 세계석유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산유국이다. 1989년까지는 하루당 3백만배럴 이상의 석유수출국이였다. 그중 2백만배럴 정도를 서방측 여러나라가 구입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석유생산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소련 西시베리아의 튜메니지역은 페르샤만 연안에 필적하는 대유전지대이다. 80년대 후반까지 석유붐에 들끓던 이곳도 기술과 자재부족 때문에 원유의 급격한 생산저하가 전망된다.

「굴착하고 싶어도 굴착되지 않는다. 금년들어 1,000개가 넘는 油井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라고 튜메니시 공산당부장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튜메니는 소련 석유생산의 70%가까이 차지하는데 올해는 전년대비 11%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은 스탈린시대에, 석유굴착기계 제조공장을

발트 3국 등에 배치하여 기계납품을 받았다. 그에 따라 석유를 안정공급해준다는 방법으로 공화국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계공장을 둔 나라들이 연이어 독립선언함으로써 석유굴착기계의 공급을 정지하는 사태도 발생, 석유생산을 곤란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극도의 외화부족 속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기계수입도 여의치 못하므로 결국 그런사정이 계속되면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中國의 타림油田 가능성

아시아의 석유대국 중국에도 소련과 비슷한 사정이 있다. 大慶油田과 勝利油田이라는 양대유전의 생산량이 앞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석유부존이 유망한 타림盆地를 개발하지 못하면 역시 석유수입국이 될지도 모른다.

반면에, 기존매장량 240억배럴에다 타림분지유전의 추정매장량 700억배럴을 더하게 되면 중국이 쿠웨이트에 버금가는 대산유국으로 등장한다. 현재 하루당 약 5,200만배럴인 자유세계 석유소비량은 연간 2%배이스로 신장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OPEC 13국에서도 그만한 증산여력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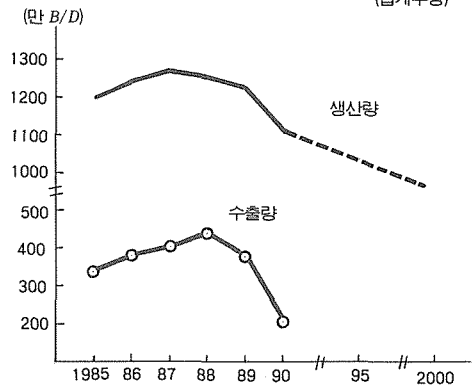
「非OPEC산유국의 대표인 소련등을 포함시킨다면 OPEC이 시장점유율과 가격결정력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또 소련은 OPEC과 메이저 양측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시나리오를 소련과 OPEC가 그려나가는 듯 하다.

한편 거대한 석유수입국화하는 미국도 지난 2월의 新에너지안전보장계획에서 국내유전의 재개발을 내세웠다. 美國의 유전개발이 다시 활발해지고 특히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적절선은 油價가 배럴당 21달러선이라 한다. 이런점에서도 OPEC의 가격전략과 美國의 利害는 거의 일치한다. 일부 고

갈되기 시작한 北海油田도 또한 돈이 드는 신규개발이 필요하다.

「세계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산유국과 소비국이 협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OPEC의 문호를 넓게 할 수도 있다」 사우디의 나제르석유장관은 이렇게 강조한다. 非OPEC산유국이 잇따라 수입국으로 전락하면 세계석유시장에 큰 파란이 일기 때문이다.

소련의 원유생산량과 수출량 (업체추정)



日本은 資金面에서 지원

소련, 중국, 베트남등 공산권의 非OPEC 산유국을 정상적으로 기능시키려면 석유개발과 생산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된다. 그래서 日本을 비롯한 석유소비국이 그것을 부담한다는 것이 90년대 OPEC전략의 기본축이다. 「산유국은 공급과 가격의 안정에 노력한다. 소비국은 그대신에 개발 원조와 기술이전에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란의 외무장관은 산유국·소비국회의에서 언명하였다.

신규개발을 추진시켜 원유가격을 유지하자고 OPEC회원국과 美國, 소련, 중국, 유럽이 새로운 국제석유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日本經濟新聞〉

예방못한 풍수해에
주름지는 나라살림